

보도시점 2023. 6. 22.(목) (배포 후 즉시) 배포 2023. 6. 22.(목)

국내기업, 오만에 그린수소 생산기지 짓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포스코홀딩스, 삼성엔지니어링 등 국내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이 오만에서 발주한 그린수소·암모니아 생산 사업권 입찰에서 사업권을 최종 획득하여 6월 21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포스코홀딩스(주)(대표이사 회장 최정우), 삼성엔지니어링(주)(대표이사 사장 남궁홍), 한국동서발전(주)(사장 김영문), 한국남부발전(주)(사장 이승우) 등

이 사업은 오만 두쿰지역 320km² 부지(서울시 면적 : 605.2km²)에 풍력과 태양광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그린 암모니아 형태로 판매하는 것이다. 최종 생산물인 그린 암모니아의 생산 용량이 연간 120만 톤 규모로 단일 사업으로 세계 최대규모다. 한국기업 컨소시엄은 그린 암모니아를 국내로 도입하여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전 세계 가동 중인 그린수소 생산설비는 최대 연간 1.2만 톤 수준이고 세계 우수 에너지 대기업들도 연간 120만 톤 규모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었다. 이후 환경부는 오만에서 단순 부지사용 허가 사업이 경쟁입찰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9월 녹색산업 긴급 수주지원단을 파견하여 오만 에너지부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 5월 25일에는 해외 발주처 초청행사인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에 오만 에너지부를 초청하여 국내기업과 면담을 주선하기도 했다.

한편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리는 사업권 계약 체결식에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는 환경부 금한승 기후탄소정책실장이 참석하여 국내기업의 그린수소 사업권 획득을 축하하고 이 사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다짐했다.

환경부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전 부처가 지원 역량을 모으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아래 협상지원, 수주, 사후관리까지 녹색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사업권 획득은 우리나라 녹색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쾌거이며, 녹색산업을 통해 국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라면서, “녹색산업을 적극 지원하여 국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전세계 녹색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오만 주요 활동 사진.
2. 오만 그린수소·암모니아 개발 사업권 확보 카드뉴스. 끝.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녹색산업해외진출지원단	책임자	단 장	장이재 (044-201-7560)
		담당자	사무관	금병욱 (044-201-756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개발실	책임자	실 장	임현정 (032-540-2170)
		담당자	팀 장	손새나 (032-540-217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오만 두쿰 그린수소 사업 계약 체결식 참석



- 금한승 기후탄소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오만 무스카트에서 오만 두쿰 그린수소 사업 계약 체결식에 참석하여 국내기업의 수주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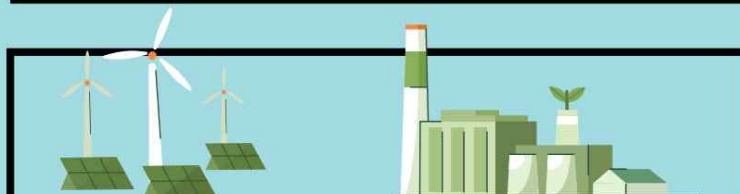
□ 오만 에너지광물부 양자회의



- 금한승 기후탄소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오만 무스카트에서 오만 에너지광물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환경협력 및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오만 두쿰 그린수소 암모니아 개발 사업



그린 암모니아(120만톤/년) 기준 단일 프로젝트 세계 최대 규모로, 서울시(605.2km²) 절반 크기보다 넓은 320km² 부지에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이를 통해 그린수소 생산·암모니아로 치환하여 국내로 도입합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업권 확보를 위한 환경부의 노력



■ 사업의 효율적 설계를 위한 **타당성조사*** 지원(~2022.7)

*사업 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사업성 조사, 탄소중립을 위해 그린수소 생산사업 최초 지원

■ 오만 정부가 기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제로 전환 움직임

→ 환경부 긴급 수주지원단을 파견*(2022.9)

* 오만은 그린수소 사용자 확보 우려 → 한국 정부가 그린수소 필요성 제시
→ 우호적 관계 형성

■ 오만 정부와 소통체계 유지



2050 탄소중립, 한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실제적 수단인 **그린암모니아(120만톤/년) 확보 효과**

* 탄소중립을 위해 2050년에 2,200만톤의 그린수소 국내도입 필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 우리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추가 수주에 유리한 위치

